



[그림 2] '자사고 입학방법 전형 개선안'에 관한 설문 통계 결과(2)

	① (명)	② (명)	합계	찬성	반대
5. 2단계 면접대상자만 자기소개서 등 관련 서류 제출하는 방식이 중3 담임교사의 업무경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도움이 된다.      ② 도움이 되지 않는다.	657	43	700	94%	6%

설문대상 : 서울시내 중학교 교감과 교사 7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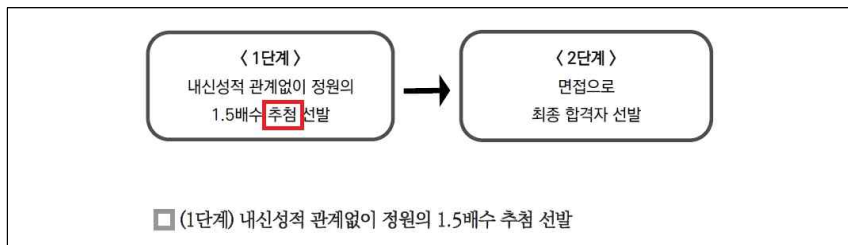
[자료제공 : 2017학년도 자사고 입학전형 방법 개선에 관한 설문 응답 통계표\_서울시교육청(2016.7월)]

중학교 3학년 교실은 2학기 내내 원서 작성과의 전쟁입니다. 자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성화고, 외고·과고 같은 특목고, 영재학교까지 전형 기간이 다른 고등학교 입시로 중학교 3학년 교실은 과행이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 한 명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중학생 본인이 자기소개서를 알아서 잘 쓰기는 더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 담임교사의 노력은 물론, 부모의 도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필요한 자사고 자기소개서 작성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교육과정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개선입니다.

■ 서울방식 자사고의 1단계 전형은 추첨으로 선발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미리 받아야 할 이유가 없음. 교육부도 전형 1단계(추첨)에서 자기소개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함.

서울 방식의 자사고(22개교, 하나고 제외)는 입학전형 1단계에서 [그림 3]과 같이 성적 제한 없이 추첨을 통해 정원의 1.5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 전형에서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단계에서 추첨으로 선발하고 있으니 자기소개서를 전형 요소로 삼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림 3] 서울 방식 자사고(22개교, 하나고 제외)의 고입전형절차



[출처 : 2017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및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매뉴얼 - 교육부]

교육부 역시 '2017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및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매뉴얼'에서도 자

기소개서 등의 제출 서류를 2단계 면접전형에서만 활용하고 1단계에서 활용을 금지할 것을 [그림 4]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림 4] 서울방식 자사고 2단계 전형 면접절차 및 방법

- "유사도 검증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기소개서의 표절여부 검증 의무화

**제출 서류는 2단계 면접전형에서만 활용하고 1단계에서 활용 금지**

면접 실시 금지 사항

- 면접문항 임의 수정, 입학전형위원회 심의 없이 면접표·심사점수 부여방법 임의 변경 등
- 입학전형 실무자, 입학전형위원 연수 미이수자를 면접위원에 위촉

방식 자율형사립고 자기주도학습전형에

[출처 : 2017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및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매뉴얼 - 교육부]

이렇듯 추첨을 통해 선발하는 1단계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가 전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사고는 추첨에서 떨어져 2단계 면접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지원자에게까지 모두 자기소개서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입학전형에서는 필요한 것만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사고가 모든 지원자에게 자기소개서를 고집하는 것은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밝혀야 합니다.

■ 1단계(추첨)전형에서 떨어질 학생을 포함한 모든 지원자에게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학생·학부모·교사의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며, 제출받은 자기소개서로 결원을 채우는 등의 불법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자사고 교장협의회는 1단계 지원자 모두에게 자기소개서를 받아야 자사고가 건학이념과 방향에 따라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사고 교장협의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지원하는 모든 학생에게 자기소개서를 받는 이유가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자사고의 건학이념에 대한 이해와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유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추첨에서 떨어지는 학생과는 아무 상관없는 주장입니다. 면접을 보는 것도 확정이 안 된 학교의 건학이념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춰 자기소개서를 쓰려는 노력은 매우 힘들기도 하지만 추첨에서 떨어지는 학생 관점에서 보면 무의미한 노력입니다. 그리고 해당 학교의 건학이념과 방향에 따른 인재인지 여부는 2단계 면접 단계에서 유효한 평가 요소이므로 2단계 대상자들에게만 요구하면 됩니다.

건학 이념 이외에 자사고 교장협의회가 주장하는 1단계 추첨 발표 후 자기소개서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타당성이 떨어집니다. 1단계 발표는 11월 15~16일에 실시되고, 2단계 등록 기간은 11월 18일~22일까지입니다. 따라서, 1단계 합격생의 경우 가장 일주일 정도의 자기소

개서를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세부적 작성 항목이 이미 다 공개되어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사고는 이토록 무리하게 1단계에서는 사용되지도 않는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받으려할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 한 언론에 난 기사가 답을 주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일반고 교감이 2일 기자에게 씩씩거리며 말했다. 같은 지역에 있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해 전학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이 학생은 전년도에 해당 자사고를 지원했다가 추천에서 떨어졌다. 이 교감은 “자사고가 학생들이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폐기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결원이 생기면 연락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전교 상위권 학생들을 자사고에 빼앗겼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중략)-----

자소서를 먼저 받아 내려는 까닭은 나중을 대비해 일반고의 우수 학생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돈다. 자사고는 결원이 생기면 공개 모집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보관하던 학생부와 자소서를 찾아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일이 비밀비재하다고 하소연하는 일반고 관계자들도 상당수다.

[출처 : 서울신문, [오늘의 눈] 학생 자소서를 움켜쥐려는 자사고, 2016.8.3.]

■ 2단계 전형 대상자에게만 자기소개서를 받는 것은 사교육비 감소 효과가 있고, 대상 학생이 줄어 자기소개서 작성으로 인한 사교육 권선행도 감소시킬 수 있음.

자사고 입학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자기소개서 작성은 2단계 면접의 당락에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고, [그림 5]와 같이 이를 대비하기 위한 각종 단기 특강 등 사교육 시장에서의 과열 양상은 매년 반복되고 그 정도를 더해 가는 상황입니다. 추천 전 모든 학생들이 아니라 추천으로 선발될 학생들만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라는 이번 입시전형 개선안은 분명 사교육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림 5] 자사고 자기소개서 관련 각종 입시사교육 광고

2017 합격프로젝트 자사고 입시 대비반						
반명	요일	시간	강사	회차	개강	수업특징
입시컨설팅	개별	개별시간	특목입시연구소	1	수시	학생부장정철기 및 진학기능학교분석
자사고 자소서	개별	개별시간	특목입시연구소	3	수시개강	자사고 자소서 1:1 개별 특강
자사고 개별면접	개별	개별시간	특목입시연구소	3	수시개강	자사고 개별면접 1:1 개별 특강

☆ 광역 자사고 자소서 대비 방학 특강반

반명	요일	시간	비고	수업회차	개강	담당강사
광역자소서 오픈반 A	목	10~12시	휘문, 중동, 현대, 세화 자소서 수업	3	7/28	김윤형부소장
광역자소서 오픈반 B	일	2~4시	휘문, 중동, 현대, 세화 자소서 수업	3	7/31	김윤형부소장

■ 우리의 요구

1. 서울시 소재 자사고는 자사고 입학전형에서 자기소개서는 1단계 추천을 통해 선정된 2단계 면접 대상자들에게만 받도록 하는 서울시 교육청의 자사고 입학전형 개정안을 받아들이십시오. 1단계 추천 전형에서는 사용되지도 않는 자기소개서를 계속 요구하는 것은 자사고의 비교육적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2016. 8. 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상진(02-797-4044/내선번호 509)  
선임연구원 김은정(02-797-4044/내선번호 503)